

제 목	국 문	부산지역 건강인의 anti-HCV 양성률		
	영 문	A study of positive rate of anti-HCV for adults in Pusa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원술, 신민자, 담도은, 신해림, 정갑열, 김준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산업의학연구소 동아의료원 건강관리과		
	영 문	Won Sul Kim, Do Won Dam, Min Ja Shin, Hai Rim Shin, Kap Yull Jung, Joon Youn Kim <i>Dept. of Prev. Med. & Ind. Med. Res. Inst. Coll. of Med., Dong-A Univ. Dept. of Health Care, Dong-A Medical Center</i>		
분 야	역학	발 표 자	김원술(일반회원)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V),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C형 간염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약 0.3-1.5 %로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약 0.9-2.0 %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C형 간염의 유병률은 대상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적 차이, 검사방법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C형 간염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C형 간염항체와 만성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 등과 같은 간질환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이거나 C형 간염 진단방법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 등과 같이 일부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인 연구들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전파수단 및 유병률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C형 간염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본 연구자들은 우선적으로 부산지역 건강검진자들을 대상으로 C형 간염의 양성률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동아의료원 건강관리과에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남자 1,107명 및 여자 699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항체(anti-HCV), B형 간염항원(HBsAg) 및 항체(HBsAb), AST, ALT, γ-GT 등의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대변에서의 간흡충증의 충란검사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자 진원에 대하여 수혈에 대한 과거력, 간염의 과거력 및 가족력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은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을 연령 및 성별로 파악한 후, 이들을 각각 B형 간염 표지자, 복부 초음파 소견상 이상유무, 간기능 이상유무 등에 의한 양성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본 조사대상자들이 건강검진 대상자들에 대해 국한되었으므로 부산지역의 인구를 이용하여 연령 및 성별 분포를 보정한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을 추정하였다.</p>				

결과처리는 PC-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별 양성률과 95 % 신뢰구간(C.I.)을 구하였다. C형 간염항체 양성인 군과 음성인 군의 두 군간 비교는 X²-test 및 t-test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1)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총 1,806명 중에서 53명으로 2.93 %(95 % C.I.: 1.58-4.28)이었고, 양성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B형 간염항원 유무에 따른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B형 간염항체를 가지는 경우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복부초음파 소견 및 간혹중증의 이상유무에 따른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혈청내 AST, ALT, γ -GT의 이상유무에 따른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간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5) 복부초음파 소견 및 간기능이 모두 정상인 경우의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1.55 %(95% C.I.: 0.46 - 2.64)이었고 이들 중 한 가지라도 정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정상소견이 아닌 경우의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3.97 % (95% C.I.: 1.55 - 6.39)이었다.

6) 부산지역 30세 이상의 인구로 연령을 보정한 경우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3.03 %(95% C.I.: 2.99 - 3.07)이었고 남,녀 각각은 2.58 %(95% C.I.: 2.53 - 2.63)와 3.44 %(95% C.I.: 3.37 - 3.51)이었다.

7) C형 간염항체 양성인 군에서 수혈력은 17.0 %, 간염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는 각각 11.5 %와 3.8 %이었다.

4. 고찰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약 8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고 1 % 내외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만성 간염과 간암으로의 이행률이 높아 이들의 예방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C형 간염의 주 전파경로는 수혈로 알려져 있으나, 본 조사결과 C형 간염항체 양성인 군에서 과거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단지 17.0 %이었고 수혈 이외에 혈액투석을 받은 사람이나 정맥 마약류 사용자는 없었다. C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에서도 정확히 C형 간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C형 간염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전파되던지 아니면 대부분 산발성으로 발생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산 지역의 C형 간염의 정확한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검진자들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였으므로 실제 부산 지역 성인들에 있어서의 C형 간염항체 양성률은 이보다 다소 낮으리라 생각되며 이들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